

경제국경 넓히는 카드·주류업계

1 카드사 '동남아를 안방으로'

롯데카드, 계열사 통해 시장 진입
베트남서 신용카드 라이선스 획득
신한·우리 등도 해외진출 잇따라



지난해 9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롯데카드 김창권 대표이사(오른쪽)와 테크콤뱅크 응우옌 레 쉐이 대표이사(왼쪽)가 롯데카드의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 진출을 위한 지분 인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카드사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빨라지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업황에 새로운 수익성 창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해석된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 소비자금융 회사인 테크콤 파이낸스 지분 100% 인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지난해 9월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롯데카드는 국내 카드사 최초로 베트남 소비자금융 및 신용카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향후 1년 내 베트남 사업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당국, 동남아 금융 협력 강화

베트남 신용카드 시장은 지난 2016년 기준 총 발급매수 약 530만장, 총 이용금액 3조5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발급매수와 이용금액이 각각 연평균 34.5%, 26.6%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14% 이상의 고(高)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카드는 이에 따라 먼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에 나서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점차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백화점·마트 등 유통 계열사 중심의 할부금융 상품과 신용카드

사업, 소비자대출에 롯데카드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한 현지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는 "추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파이낸스 사업을 안착시켜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 받는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이 같은 동남아 시장 진출은 금융당국의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 국내 금융분야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섰다. 이른바 '신남방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와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

장이다.

실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업이 인·허가 사업으로 외국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여기에 당국이 나서 카드사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카드업계, 잇단 동남아 진출

롯데카드에 앞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미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국가에 진출하여 신용카드 외 리스금융·소액대출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1월에는 베트남 소비자금융사 푸르텐셀 베트남 파이낸스 컴퍼니 리미티드(PVFC) 지분을 100% 인수하고 현지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 현지 국책은행인 만다리은행과 합작사미프라프란자시를 설립하고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법인 인가 이후 현재 영업활동을 위한 카드 단말기 규격 통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미얀마에서 소액대출 해외법인 투투파이낸스를 운영하며 향후 동남아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카드는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규설립, 현지기업 인수 등 자체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지금 이 기회다” 외국인, 삼성전자 독식

(삼성전자)

역대급 저평가 분석에
외국인 열흘 새 1조 매수

〈각 증권사 별 삼성전자 목표주가〉

증권사	리포트 발간일	증권사별추정치	
		투자이견	목표주가 (만원)
한국투자	3.14	매수	310
신한	3.13	매수	320
대신	3.12	매수	313
KB	3.12	매수	300
유진	3.12	매수	330
DB금융	3.7	매수	320
이베스트	3.7	매수	340
키움	3.7	매수	330
IBK	3.7	매수	330
한화	3.7	매수	330

/각사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다. D램 가격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업황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바뀌고 있어서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나타났다. 최근 9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955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다. 지난 16일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비중은 52.41%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6785억원)였다. 순매수 규모를 보면 외국인의 '삼성전자 편식'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다.

◆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에 베풀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노무라의 미국주식리서치자회사인 노무라인스티튜트는 “향후 6개월간 반도체 가격은 약 10%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끌어 올렸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달 초 “전 세계 D램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도 '기대'로 바뀌고 있다.

먼저 1분기 D램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망(2% 상승)보다 높은 증가세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의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삼성전자는 피해갈 전망이다. 반도체용 웨이퍼 공급사가 신규 생산능력을 천천히(연평균 10% 미만) 늘리고 있어 웨이퍼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삼성전자는 3년치 웨이퍼를 확보해 생산단가에 문제가 없다.

◆ 실적 랠리 기대감, “저평가 매력 부각”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5조원에 달한다. 올해도 20% 이상의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6조원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이 떨어진 상태다. 지난 한 해 동안 41.40% 올랐던 주가가 올해 들어 1% 안팎 상승하는데 그친 상황. 반도체 업황 침체, 스마트폰 수요 약화 등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해소되고 있는데다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점이 효재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7.1배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당시 PER(13.18배)의 절반 수준이고, 경쟁사 인텔의 PER(13.7배)에도 한참 못미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2 진로·롯데 등 印尼 이어 중동까지

하이트진로·국순당 등
리뉴얼부터 제품 다양화
미국·중국 등 현지 공략



하이트진로 '엑스트라 스트롱'과 롯데주류 '피츠 슈퍼클리어'.

/각사

주류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내수 성장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제품군도 소주를 비롯해 맥주, 전통주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현지화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인도차이나반도에 소주시장 구축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사 및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지 2년 만에 호찌민 지사는 추가했다. 또한 법인이 없는 필리핀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캄보디아에 안테나샵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소주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동남아시아 소주판매는 2015년 490만달러에서 2016년은 600만달러, 2017년은 880만달러까지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부터 뉴질랜드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 선보였다. 하이트 엑스트라 스트롱은 '하이트 스트롱'을 리뉴얼 한 제품이다. 2013년 몽골에 하이트 스트롱을 처음으로 수출한 후 진출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은 종교적 특색과 엄격한 정부규제 등으로 알코올 소비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과 노

동자들의 유입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중동의 맥주 시장 규모는 10억L였으나 2021년에는 12억L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트롱 맥주 시장 역시 3000만L 규모에서 점차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맥주 '피츠 슈퍼클리어'와 '클라우드'를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중국 상해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판매를 하고 있다. 수출 물량은 355ml와 500ml를 합쳐 약 8만개 규모다.

'클라우드'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미국, 호주, 중국 등 세계 20여 개국에 '클라우드'를 수출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수출 전용 제품 '순하리 딸기'도 출시했다. '순하리 딸기'는 알코올 도수 12도, 용량 360ml로 딸기향이 들어 있어 딸기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순하리는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음용하기 쉬운 과일맛 주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난 2015년 첫 수출 이후 2년 만에 수출 실적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 현지 대형 마트와 업소에서 판매 중이다.

전통주도 해외로 확장 중이다. 국순당은 일본의 벚꽃 축제 시즌을 맞이하여 일본 수출용 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벚꽃 에디션'을 수출한다. 이 제품은 벚꽃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생막걸리 제품으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일본 수출에 나선다. 이번 제품은 일본 현지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벚꽃 축제 기간에 다시 한정 판매된다.

무학은 과일리큐르 '좋은데이 컬러시리즈'와 '트로피칼이톡소다'를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 무학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현지 주류회사 빅토리아를 인수해 동남아 진출 토대를 닦았고 국내 주류업체 최초로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인해 주류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국민연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캐스팅보트로

» 1면 'NPS표심 어디로?...'서 계속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현재는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가 맡고 있다.

기존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왔다. 때문에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안건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넘기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가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관련 반대 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을 추가했다. 소속 회사나 계열사에 재직할 때 명백히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한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는 주총에서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 외 의결권 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 누적률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봉준 기자